

다시 푸는 경서

법구경

지옥품(地獄品) ②

人行爲慢 인행위만다
不能除勞 불능제중노
梵行有玷 범행유점결
終不受大福 종불수대복

如備邊城 여비변성
中外牢固 중외부고
自守其心 자수기심
非法不生 비법불생
行缺致憂 행결치우
守獲地獄 영타지옥

사람이 수행을 게을리하면
온갖 괴로움 없앨 수 없다
범행에 흠이나 이지러진 있으면
끝내는 큰 복 받지 못한다

변방의 성을 방비하는데
안 밖으로 단단히 지키듯이
스스로 그 마음 굳게 지키면
법답지 않은 일 생기지 않으나
행동이 이지러지면 근심 따르고
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

常行所當行 상행소당행
自持必令強 자지필영강
遠離諸外道 원리제외도
莫習爲學 막습위진구

可差不紊 가수불수
非善反善 비수반수
生爲邪見 생위사견
死墮地獄 사타지옥

항시 행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하고
스스로 지켜 더욱 강하게 하며
못 의도를 멀리 여의고
때 묻히는 일 막히지 말라

부끄러워 할 일 부끄러워 않고
부끄럽지 않은 일 도리어 부끄러워
하면

爲所不當爲 위소부당위
然後致毒 연후치유독
行善常吉順 행선상길순
所迹無悔 소적무회린

살아서는 샅된 소견이 되고
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

可畏不畏 가외불외

“해서는 안되는 일 행하면 저지른뒤 가슴 답답하고 괴롭다”

해서는 안되는 일 행하면
저지른뒤 가슴 답답하고 괴롭다
바른일 행하면 항상 좋고 순하여
가는 곳 마다 뉘우침 없으리라

非畏反畏 비외반외
嚮向邪見 신향사견
死墮地獄 사타지옥

其於樂行 其어중악행
欲作若已 욕작약이작
是苦不可解 시고불가해
罪近難得 죄근난득피

두려워 할 것 두려워하지 않고
두렵지 않은 일 도리어 두려워하여
샅된 견해 믿고 살면
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

그 여러가지 나쁜 행에서
하고픈대로 저질렀다면
그 괴로움 풀수가 없고
죄가 다가와도 피하기 어렵다

可避不避 가피불피
可就不就 가취불취
斷斷邪見 단단사견
死墮地獄 사타지옥

妄議求敗 망증구패
行已不正 행이부정
怨讎良人 원침양인
以枉治士 이왕치사
罪轉斯人 죄환사인
自投于坑 자투우경

피해야 할 일 피하지 않고
나아가야 할 일 나아가지 않고
샅된 소견 즐겨 익히면
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

거짓 증거로 남을 깨뜨리면
그 행은 이미 바르지 못한다
선량한 이 원망하고 모함하여
억울한 죄로 다스리는 것
그 죄는 그 사람을 묶어서
스스로를 지옥구덩이에 던지는 것이
다

可近則近 가근즉근
可遠則遠 가원즉원
恒守正見 항수정견
死墮善道 사타선도

가까이할 것 가까이 하고
멀리할 것 멀리하면서
항상 바른견해 지켜가면
죽어서 좋은 세상에 나게된다

龍眼

큰스님 수행한담

“교만 버리고 하심하면

설산스님 <정토사 주지>

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
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. 행복과 불행이
라는 기준을 놓고 돌이켜보면 누구에게
나 행복했다는 이야기보다 불행했다는
이야기가 더 많을 것입니다. 그것은 인생
자체가 고(苦)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
행복은 불행한 가운데에서 느껴지기 때
문입니다. 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결코 다
른 것이 아닙니다. 불교에서는 현상계의
모든 것을 다 무상(無常)하다고 말하지
요. 이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허무하고
불행합니다. 그러나 현상계가 무상함을
바로 직시하고, 있고 없는 현상을 초월하
면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. 나는
60년도 훨씬 전에 출가해 나름대로 정진
해 왔지만 회수(悔悟)가 지난 지금이야
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.

번은 건봉사에서 만해스님의 강연회가
열렸는데 만해스님의 사자후는 천지를
뒤흔들 듯 힘이 실려 있었지요.

“대해탈은 공공 묶인 속박에서 얻는 것
입니다. 많은 것은 많은 데서 찾을 수 있
기에 잃어버렸다고 믿으면 꼭 찾아잡니
다. 속박과 해탈은 둘이 아닌 ‘박달무이
(縛脫無二)’지요. 묶는 것은 풀기 위해
묶는 것입니다. 해탈은 여기 있습니다.
우리는 해탈을 하기 위해 속박되었습니
다. 백팔번뇌는 속박을 가져오지만 반대
로 속박없는 대해탈도 얻지 못합니다.”

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했던
시절이었는데, 불교사상에 비유하여 독립
의 희망을 설하시는 만해스님의 모습이
어찌나 존경스럽던지 스님의 말씀을 놓
칠새라 내용을 적어가며 강연을 들었던
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

18살까지 건봉사에 머물다가 19살되던



- 1919년 경북 문경 생
- 1934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스님을 은사로, 계허스님을 계사로 득도
- 194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함암선사를 모시고 10만여 성만
- 1943년 해화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
- 조계종 제8대 총회의원 역임, 도선사 설달승가학원 초대원장 역임
- 現 배달문화선양회 총재, 설산장학회 회장,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

“속박과 해탈은 둘이 아닙니다 묶는 것은 풀기위해서입니다” 만해스님의 강연 아직도 생생

해 불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 개설된
강원도 삼본산(三本山) 승려수련소에 입
소를 했습니다. 당시 조실스님인 방한암
(方澗岩)선사는 대선지식으로 명성을 날
리시던 분이였지요. 상원사의 대종은 수
련생 15명을 합쳐 80명이 운집해 있는
선방이었는데 견성오도하기 전에는 결코
들러서지 않겠다는 원력이 아니고는 참
방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. 아침공양을 마
치고 나면 <금강경> 강론시간이 되는데
조실스님의 지시에 따라 경의 한 대목을
읽고, 공이어 조실스님이 해석을 하시고
구절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런데 당

일 배운 것을 정신차리고 들지않고 한눈
팔다가 외우지 못하면 수련생들은 끔찍
없이 입승을 보시는 탄옹(炭翁)스님께
공아리를 맞아야 했습니다. 조실스님이나
탄옹스님은 밤에 방선 후 새벽 세시까지
장좌불와를 하시는데, 탄옹스님은 앉은
자세로 10분간 누웠다가 그대로 다시 일
어나 앉아 계십니다. 그 모습을 바라보면
서 그저 흥내라도 내보자고 결심을 하고
탄옹스님 뒤에 앉아 3주동안 참선을 했
는데 그러다 그만 몸이 열이 오르고 말
았지요. 정(靜)에 들 때에는 마음보다는
육신의 행복을 받아야 하는데 회두를 들

고 정에 들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행복
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내가 열이
오른 것도 그런 까닭이지요. 육신으로부
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억지로 졸음을
참고 그랬으니 그럴수 밖에요. 수행을 할
때에는 반드시 그 방법을 조실스님으로
부터 들어야 하는데 ‘내가 못하겠는가’
하는 지만으로 그저 흥내만 냈으니 말입
니다. 열이 오르고 사흘동안 먹지도 못한
채 혼잣말을 하고, 산으로 개울가로 돌아
다니다가 수좌에게 붙들려 한암스님 앞
에 가게 됐습니다.

스님 앞에 무릎 꿇고 앉으니 스님께서
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
다가 갑자기 주장자로 제 어깨를 내려치
시면서 “아프거든 소리를 지르고 안 아
프거든 가만 있거라”하고 소리를 지르시
더군요. 배리는데 안 아플 리가 있습니
까. “아!”하고 소리를 질렀지요. “아프
나?” “아픕니다” “이놈아, 그걸 말고 안
아프다고 할 줄도 모르는 놈이 참선은
무슨 참선을 하겠다고 흥내를 내느냐!”

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

이계진 아나운서가 수리절 홍보 보좌관!



우리절 우리스님

방송시간
(50분간 1회분량 3회 재방)
매주 화요일
09:10~10:00
13:25~14:15
22:00~22:50
매주 일요일
18:40~19:30

“ 불교텔레비전 ‘우리절 우리스님’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.”
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.
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어귀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
프로 ‘우리절 우리스님’에 나가 풀어보세요.
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집니다.

* 출연문의 : 불교TV 영상사업부 02)3270-3368



불교 TV
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

*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